

제 43 호

연중제 25 주일  
(강림 후 15)

1973. 9. 23

# 숲 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강론]



### 교회는 나를 부른다

범 석 규 신부

“어려운 일을 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제자가 되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마태오 11 ; 28-30)

요즈음 본당마다 사도회 총회를 열어 회장단 선출을 하고 임원과 구역회장을 임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매년 이때만 되면 그간 사도회의 직무를 맡으신분들은 더 이상 직무를 맡을 수 없으니 제발 이 짐을 다른분에게 지워주시시오 하고 그 짐을 벗어버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저는 무슨 무슨 사정이 있어서 맡을수 없습니다. 하고 사의를 표명합니다. 물론 교회의 직무 맡기 어려워 사의를 표명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짐스러운 직무를 모두 회피한다면 베드로의 배인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직무에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편하고 가벼운 일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편하고 가볍게 살면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추수가 거저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봄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땀흘린 보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거두지 못하는 추수를 기약하고 농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풍성한 추수를 바라보면서 농사일은 하지 않을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순교 선열들을 바라보십시오. 명예도 지위도 복음도 바쳐가며 선교신부 없는 이 한국교회의 틀을 잡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피를 이어 받은 후손들입니다. 그 값치고 자랑스러운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의 자랑스러운 직무를 맡기를 주저합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에 답게 출신해서 풍성한 추수를 기약하는 교회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주일의 미사\*

□임당송 나는 백성의 구원이니, 어떠한 환난중에서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고 내 영원하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 주리라.

□제1독서 (지서 2 ; 17-20, 경향잡지 9월호, P40)  
가장 수척스러운 죽음에 그를 처단하자.

□총계송 ◎주께서 내 생명을 불들어 주시나이다.  
하느님, 당신 이름으로 나를 구하소서. 당신 힘으로 내 송사를 바꾸어 주소서. 하느님, 내 기도를 들어 주소고, 내 입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소서. ◎

□제2독서 (야고버 3 ; 16-4 ; 3, 성서 P. 524)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들인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은 우리를 불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으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도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9 ; 29-36 성서 P. 98)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이의 종이 되어라.

### □신자들의 기도

1. 순교자들의 위안이신 예수여, 한국의 치명 복자들을 하루 빨리 성인 품에 올려주소, 그들의 강한 표양이 맞갖은 대접을 받게 해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여, 당신의 후계자인 사제 양성 문제에 우리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게 인도하소서. ◎

3.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위로자이신 예수여,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항상 그들을 돌보아 주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의 부족한 행동이 자랑스러운 순교 선조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입으로만 순교 선조들을 찬양해왔나이다. 우리의 행동으로도 순교 선조들을 찬양하고 증거하게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주께서 계명을 선포하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의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내 걸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 \*이 주간의 성경\*

24 (월)	독서 (로 마 8 ; 18-25. 성서 P.352)
	복음 (루 가 8 ; 16-18. 성서 P.146)
25 (화)	독서 (로 마 8 ; 26-30. 성서 P.352)
	복음 (루 가 8 ; 19-21. 성서 P.147)
26 (수)	※ 한국 순교 복자 축일
	독서 (로 마 8 ; 31-39. 성서 P.353)
	복음 (루 가 6 ; 7-23. 성서 P.138)
27 (목)	독서 (로 마 12 ; 3-8. 성서 P.362)
	복음 (루 가 9 ; 7-9. 성서 P.150)
28 (금)	독서 (로 마 12 ; 9-21. 성서 P.362)
	복음 (루 가 9 ; 18-22. 성서 P.151)
29 (토)	△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독서 (로 마 13 ; 8-10. 성서 P.363)
	복음 (요 한 1 ; 47-51. 성서 P.205)

# 전 한국 교회사에 처음 보는

## 동정부부의 결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김 영 구 신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동정부부의 현상이야말로 말로 이나라 건국 이래 처음보는 기적적 현상이다. 태종대왕의 후예인 이윤하(李潤夏)의 딸 따님 누갈다, 유혜양과 세칭 호남의 대지주(大地主) 백만장자인 토호(土豪) 유항검(柳恒儉)의 딸아드님 요한, 중성(重識)군은 둘이다. 20세의 미만의 묘령 청춘 남녀로 정식 혼인 한후 깨끗한 형매(兄妹=오람동생)생활을 5년간 했다. 그후 같은해(辛酉 1801), 같은 전주에서 장부 요한은 음 10월 9일 옥중 교살(絞殺)로, 부인 누갈다는 12월 28일 숲정이 형장에 나가 참수형(斬首刑)으로 각각 영광스러이 순교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이나라 건국 이래 동정이 무엇인지, 더구나 부부수정(夫婦守貞)이 어떠한 것인지 상상조차 못하던 이 땅에 처음 된 한쌍의 아름답고 향기 그윽한 옥잡화로서 크나큰 인사적(人事的)이었다.

다비류 안주교님의 감탄어린 증언대로 <전 조선 모든 순교자 중 오목 솜은 하나의 진주, 정화(珍珠精華)라 하신 이 고장 전주의 자랑이며 영광인 우리 누갈다 동정부부의 그 초인간적인 언행은 이세상 필설(筆舌)로서는 도저히 맛있게 묘사해 낼 길이 없는 한쌍의 옥잡화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옥중에서 친정 어머님과 울케, 친동생에게 보낸 그 아름다운 편지라기 보다 차라리 하나의 훌륭한 서정시(抒情詩) 한 토막은 그때 그의 심정을 생각하는 이라면 누구나 웃기를 적지 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나의 울케 언니! 귀여운 나의 언니여! 나는 지난 10월 13일 (장부 요한과 그 동생 문철이와 함께 교살당해 처명한지 4일이 되던날) 벽동관비(碧潼官婢)로 가라는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나이다. 내게 대해서는 이 <관비>라는 칭호야말로 천지간에 어디서도 셋을 길이 없는 가장 부끄럽고 너무도 망신스런 칭호였기에 이 말을 듣고 친지가 아득하여 즉시 본관에게 들어가 “우리는 모두 천주 믿는 교인이요며 국법대로 죽을 죄인이온즉 소녀도 우리 집안 다른 식구들과 같이 천만번 죽기가 소원이오니 <벽동관비>로 목숨을 늘려주는 대신 제발어서 여기서 죽여 주소서” 하며 천만번 애원하고 사정해도 끝내 들어주지 않고 밀어냄으로, 할일 없이 오직 애절한 기도로 천주님께 내 몸을 맡기고 길을 떠나 한 백리쯤 가다가 우리들을 다사 도로 전주옥으로 불들어 갈 포졸들이 나타남을 볼 때, 이 마음의 반가움, 그 기쁨 무엇으로 표현하리오! 4년간 타향에 있어 그리웠던 친정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나는 그 반가움인들 어찌 이에서더 하리까?…… 아! <벽동관비>!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고, 부끄러워 이 내몸을 천지간에 숨길곳을 찾지 못하겠나이다.

나 만일 천주의 특을을 입어 처명 했다는 소식을 듣거든 형님! 아우여! 부디 조금도 설위 말으시고 도리어 기뻐하시오. <벽동관비>라는 제집의 누이라는 명칭과 처명하는 정녀의 누이라는 명칭중 그 어느것이 더 귀하나이까? —라하였다.

왕족의 귀한 몸으로서 남의 노비(奴婢)가 된다 해서가 아니라, 천주의 어머니 되신, 것을 경하 받으면서도 <주의 여중>이라고 비칭(鼻稱)하시던 성모님의 표양에 합박젓은 점손의 화신(化身)인 누갈다로서, 남의 <노비>라는 천대쯤 결코 부끄러할 자 아니었고, 더구나 주를 위해 또는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남의 <노비>됨을 결코 망신스럽게 여길 동정녀가 아니었다. 왜 그러면 그대지도 못참아 하였던가?

그때 풍속에 어느 고을 관비로 귀양가는 젊은 여성은 귀양간 그 고을 사또의 선심여하에 따라 그곳을 찾아드는 귀한 방문객을 위한 소위 하루밤 위안부(慰安婦)의 역할을 강요당하는 것이 일췌였고, 죄수로 있는 여성쯤이야 고양이 앞에 쥐로서 하소연할 능력과 묘책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야만적이며 야수적인 현실을 잘 알고 있던 백옥 같은 누갈다는 예수님께 바친 그 깨끗한 순결성, 천하를 주고도 못바랄 그 정결을 살리고 키우려고 20년간 그 뜻다운 청춘을 고스란히 주게 바쳤던 누갈다—정식으로 혼배성사로 맺어진 버젓한 본남편 요한과 첫날밤에 맺은 약속으로 5년간 온갖 유혹의 도가니인 백만장자의 가정에서 호화롭고 호강스러운 생활속에서도 티한점 안 묻히고 깨끗하게 지켜나온 그 백옥같이 아름다운 몸의 주인공 누갈다!로서 야수같은 못 사나이들의 농락물이 될 관비로 귀양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야잡고, 너무나도 서럽고, 너무나도 원통한 일이었기에 이것만은 그 몸을 천조각 만조각 갈래 갈래 찢어죽이는 것보다 천만배 더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관에게 달려들어 “당신은 나라의 국록(國祿)을 먹는 뱃뱃한 관비로서 어찌하여 국법대로 죽어야할 죄인을 죽여주지 않고 소녀를 관비로 살리려 하나이가?” 하고 막 대들었던 것이다.

누갈다는 옛날 아쁘리나성녀가 순결을 더럽히기 보다는 차라리 맹렬한 불속에 분신(焚身) 순교함이 낫겠다 하던 것처럼 우리 누갈다도 죽여죽음을 자청했던 것이다. (그 자세한 역사 <호남 발전사> 90페이지 참조)

아! 전주가 낳은 <한국의 진주, 정화>! 그 묘소는 증암산(증바위 僧巖山). <전주시 교동 1가 132-4>

### 전라 종합 전자 상사

T.V. 신통. 다목적 전기 술 등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인사드립니다.  
날로 새로워 지는 오늘날, 교향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실용적으로 꾸미시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그맣게 전라 종합 전자 상사를 차려 문을 열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잠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옆(전 영화예식장 자리)  
전화 ㉠ 2757 조 율희(베드로) 올림

□ 학생논단 □

종교인의 자세

이 호 성 <알폰소>



2학년때 읽은 "퀴바디스"에서의 순교장면과 그때의 감동이 복자성질을 맞이해서 더욱 생생히 되살아 온다. 우리도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고, 의심을 품어 본다.

이야기는 원시 기독교 박해와 포교를 줄거리로 해서 엮여진다. 기존왕권의 존립과 제국사회라는 기존질서를 부정하고, 인간평등과 사랑을 부르짖던 기독교가 로마 위정자들에게는 반국가적 반동적 체제 내지 정진없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폭군 네로는 그의 병적인 시작(詩作)과 광적인 괴팍한 성격에 의해 로마를 불태운다. 그리고 방화 혐의를 기독교도들에게 돌린다. 결국 수많은 신랄한 기독교도들이 굶주린 맹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다른 신을 믿고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 순교는 기독교도들의 최대 비극이요, 동시에 최대 승리를 의미한다. 죽음직전의 그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성자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의 신념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앙은 죽음을 부활로써 받아들인다. 그들은 죽음의 광장으로 끌려나오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경건히 기도를 올린다. 영광스럽게도 그들에게는 약속된 내세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주어진 것이다.

그들은 군중의 광적인 합성을 내세로 인도하는 천사들의 노래소리로, 맹수들의 포효를 구원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선택받은 인간들이다. 그러하기에 그처럼 아름다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열활은 환희에 차있고 그들의 행동은 경건하다. 여기서 죽음직전의 그들의 초연한 모습을 보고 많은 로마인들이 감화를 받는다. 어떤 신(神)을 어떤 믿음을 갖았기에 저들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 들일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읽는 도중 종교적인 승리를 간접적으로 대해 볼 수 있다 기쁨도 켜지만, 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자책감도 컸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들은 인간생활의 표본을 보인다. 언젠가 강론에서 "원시 기독교 신자들은 그때의 이교도나 외인에 의해(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불리었는데 지금 우리는 감히 그렇다고 할 수 있는나"는 반성을 촉구하는 말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서로를 진정 사랑한다. 정말 "나"가 없는 이기(利己)가 배제된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사제와 신자들에 있어서는 신자들은 사제를 진정한 구속사업의 후계자로 존중하고 따르며, 사제들 역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요 그의 대리자로서 신자들을 지도하며 사랑한다. 그들의 설교와 언행은 영행에 처해있는 신자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의 불우한 영혼에 항상 밝은빛을 밝혀줌으로써 항상 바른 길로 어린양들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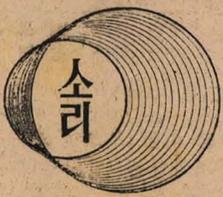
실리(實利)위주, 현실위주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생산성이 없는 케케묵은 헛소리로 들릴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선조처럼 신자들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분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자성질을 맞아 이들의 행적을 찬양하며,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진주고등학교 3학년, 덕진성당)

요심이 (10) 김병오



책은 바른 신앙을 기르는 양식이요, 매개체다.  
성 바오로 서원



◎ 지난 8월 19일 부터 22일까지 가톨릭센터에서 있었던 교구 교리교사 연수회에서 교리교사들이 성금 4,971원을 모은 적이 있다. 이 내용은 9월 9일자 가톨릭 시보 3면 <중>난에 알려진 바이다

◎ 과부 실음은 과부가 안다고, 서로들 주머니를 털어, 벽지 공소에서 수고하는 교리교사들에게 교리교재를 구입해 주자고 거두어 모은 피나는, 정말로 안타까운 성금이 아닐 수 없다.

◎ 그래서 그런지 가톨릭시보도 「비록 용돈을 톤 적은 액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가목한 성의에 교구내 뜻있는 성직·평신자들은 숙연한 표정」이라고 적고 있다.

◎ 하지만, 과문인지는 몰라도 아직 무어가 어렸다는 그 뒷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있다. 단지 4,971원만 사목협의회 캐비닛에 얽전히 처박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나 적은 액수라서 사목협의회 실무자도 어떻게 엄두를 못낼 처지인 것 같다.

◎ 「이들의 가목한 성의에 교구내 뜻있는 성직·평신자들은 숙연한 표정? 「숙연한 표정? 「숙연한?」

\*호화 실내장식과 쾌적한 분위기\*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찾 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제과 ⑤5011 찾집 ⑤5013  
김원준(야고버)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 남 샐 프 { T V  
                  { 생 장 고  
                  { 석 유 스토브

전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⑤ 8121  
여 요 셉(운창)

\* 축 발전 \*

스 타 사 진 관

장 남 수(바오로)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⑤ 6094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프란치스코회 제3회

① 재속 전주 방지거 형제회 (중앙·복자·덕진) 창립총회, 피정, 착복·허원식 (10월 4일 9시 - 오후 5시)

클라라회에서 분리된 4개월만에 교구장 인준과 한국 연합회 승인을 얻어서 갖는 창립 총회 끝에 다과회도 있습니다. (수도복·도시락 지참)

② 심의회 (10월 3일 오전 10시, 중앙성당)

③ 착복·허원 수련자 교육 (9월 28일 오후 2시, 중앙성당)

2. 꾸르실로 울뜨레아 (9월 24일 (월) 밤 8시)

① 남부 (복자·서학·전동)-성심학교 ② 북부 (노송·덕진·중앙)-중앙성당

3. 여성 교실 (9월 26일 (수)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소) (시)

(중앙)

(전화 ②2651 ③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1. 사도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강당)
 

대의원 되시는 분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① 예산 심의 ② 임원 선거 ③ 기타 중요 안건심의
2.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치명산 참배 (다음 주일 오후 2시)
4.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이사회-금주 토요일 오후 8시
5.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남기는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 부녀부 피정 (10월1-3일, 광주 피정 센터)
 

회비 (2,500원)는 9월26일까지 부녀부장에게 접수
7. 감사합니다.
 

청우회에서 성당 환경미화를 위한 화단 꾸미기에 6천여원 회사 했습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33,08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1. 사도회 임원 총회 <오늘 10시 미사후>
 

임원 과 각 구역장 반 반장 전원 참석 바람.
2. 방지거회 재속 형제 회원의 착복 및 허원식
 

3일 저녁 미사에 있을 착복 및 허원식 희망자는 9월 30일까지 수녀님께 등록하시기 바람
3.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소회장과 임원, 구역장, 반장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지난 주일 신축 성미 2말 누계 (64말 7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549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수고하시겠습니다 (신임 사도회장단)
 

회 장 김종환(빈첸시오)
   
부회장 남상룡(루가)
2. 신년도 예산 편성 (오늘 공식 미사후)
3. 푸른 양지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4. 부녀부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미사후)
5. 교무금 납부 상황 (9월 20일 현재)
 

책정액 1,510,833원
   
납부액 943,890원 62%
   
미납액 566,943원

☆ 축 결혼 ☆ 9월 27일 <목> 12시)
   
신랑 이광혁(바오로)군과 신부 김금현(아베스)양

□지난 주일 봉헌금 5,36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 회장 조성호

1. 복자 축일에 견진 성사 (26일 오후 7시)
 

① 견진자 고백 성사-주일·월·화요일 미사 전후
   
② 사도회 임원과 구역장은 오후 2시까지 나오시기 바람.
2. 교무금을 속히 완납합니다.
3. 주일 봉헌금과 성미는 감사와 속죄의 제물로.
4. 9월중 예비자 교리는 쉽니다.
5. 꾸르실로 팀 회합(월요일 저녁미사후, 조중열씨택)
 

□지난 주일 성미 2말 5되 (누계 194말 1되)
   
지난 주일 봉헌금 14,232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견진성사와 주교님 초도순시 (오늘)
 

① 견진자와 대부·대부는 오후 3시에 있을 견진미사에 대비하여 30분전에 나오시기 바람.
   
② 견진후에 있을 부리핑에 사도회 임원 전원의 참석 바람.
2. 신년도 예산편성과 임원 개선(다음 주일 오후 2시)
 

사도회 임원과 구역장, 반장, 그리고 본당 신부님의 위촉을 받으신 분은 빠짐없는 참석 바람
3.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회계년도-9월말)
4.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일 저녁 미사후)
 

이사회-금주 토요일 저녁미사후

□지난 주일 봉헌금 10,22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방지거 삼회 (오늘 오후 2시, 성당)
2. 복자 축일 전야 영세식 (25일 밤 7시)
3. 사도회신·구입원 및 구역장 피정 (토요일 오후 2시)
 

△ 새 전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신분 (감사합니다)
   
임남수(서해방중주식회사 사장) 3만원, 이금용 1만원
   
△애령회 특별 봉헌금 5,777원

□지난 주일 봉헌금 27,955원, 감사합니다.

◎ 1974년도 임원 명단 ◎

- 회 장 송재진 부회장 유경옥, 양윤모
- 선교부장 김병오, 차장 백종훈, 교육부장 조지영, 차장 유기동 재경부장 김용옥, 차장 김공규 사회부장 유철중, 차장 조윤희 부녀부장 이길용, 차장 강응애 감사 황희상, 한상갑
- 구역장(전동)1-이영희, 2-이춘근, 3-양귀선, 4-장덕순, (동고동)1-서병권, 2-최덕남, 3-김복덕, 4-한봉수, 5-이귀남, (서교동)1-이성규, 2-김창신, (동완산동)1-최기열, 2-권현자, 3-강복남, 4-김금남, 5-유기남, (서완산동)1-이현재, 2-박중수, 3-고태석, (풍남동)1-박순례, 2-이상현, 3-이선경, 4-이옥순, (남노송동)1-도금덕, 2-이경순, 3-강순희, 4-태복례 (중앙동)-손대현, (경원동)-김민주, (다가동)-이길만